

15. 出入記者 懇談會 資料(建設部)

건설부 1991. 6

1. 주택·토지시장 동향

- 8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특징은 일본, 대만 등 무역흑자국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됨에 따라 소위 재테크에 의한 거품현상이 세계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임.

	일 본	미 국	대 만	한 국
- 주가상승	4.7배(83~89)	2.5배(83~87)	15배(83~87)	5.5배(86~89)
- 부동산가격	4.0배(86~89)	2.0배(86~89)	5배(85~89)	2배(87~90)

-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의 큰 흐름속에서 86~89년동안 280억불(20조원)의 무역수지 흑자로부터 발생한 유동성이 자본재 등 생산성 향상분야로 투입되지 못하고, 주식과 부동산시장에 집중 유입됨에 따라 과거 3~4년간 전형적인 거품경제를 경험

	'85	'86	'87	'88	'89	'90
• 주가지수	163.4	272.6	525.1	907.2	909.7	696.1
• 주택가격	100	97.3	104.3	118.0	135.2	163.6
• 지가	100	117.3	123.0	156.8	207.0	249.6

- 80년대 말부터 일본, 대만 등에서는 거품경제가 터져나가 지금은 경쟁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, 우리나라의 경우는

- 주식시장의 경우는 국민주 발행 등 짧은 기간내 대규모 물량공급이 이루어져 89년을 고비로 이미 거품현상이 사라진 반면
- 부동산시장은 주택, 토지 등의 공급에 최소한 3~4년이 걸려 아직도 실물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에 따라 거품경제가 지속되고 있는 설정임.

2. 현황 및 문제점

- 도시화·핵가족화·소득증대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공급부족으로 주택수급 불균형

	'80~'87	'88~'90
• 신규주택수요	37만호 22	40만호 51
• 주택건설실적	△15	11

※ 인구증가율 1.1%, 가구증가율 3.2%

- 주택가격의 불안정

- 무역흑자, '88울림픽특수 등 유동성 자금이 주택으로 유입되어 주택가격상승 초래
-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상승폭보다 상회

	'85	'87	'90	
• 주택가격지수	100	104.3	163.6	△32.5
• 소비자물가지수	100	105.9	131.1	

- 이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함으로서 주택공급은 원활하게 되었으나 공급확대와 주택가격 안정간에 서로 상충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남.

- 투기적 가수요 증가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곤란

- 아파트 당첨과 동시에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여 청약과열 및 프리미엄 및 불법전매 등 주택 투기현상 만연
-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물량의 절대적 부족과 전·월세 값의 급등으로 대다수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가중

- 지속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무주택자의 구매력 보강이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주택금융이 경기의존적이며 단기적 재원조달구조로 되어 있어 지원미흡
- 부동산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아 주택에 대한 과소비현상 초래

3. 주택정책의 기조

주택공급 확대

- 공급부문의 역할의 지속적 확대

구 분	주 택 건 설 실 적					1인당 GNP (弗)
	계 (연평균)	공 공	%	민 간	%	
'62~'66	326천호 (65천호)	40	12	286	88	125
'72~'77	761 " (152 ")	229	30	532	70	1,008
'87~'90	1,773 " (443 ")	713	40	1,060	60	5,569

-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추진

— 200만호 건설계획은 '91. 4. 30현재 177만호 착수(88.7% 추진)

구 分	계 획		'91. 4. 30 실 적		대 비 (%)	
	전 체	'91	전 체	'91	전 체	'91
계	2,000천호	500	1,774	245	88.7	49.0
- 공 공 부 문	900	220	624	78	69.3	35.6
영 구 임 대	250	70	128	25	51.2	35.4
근로자 용	250	80	79	18	31.6	23.0
장기 임 대	150	18	168	12	112.0	65.5
소형분양	250	52	249	23	99.6	45.0
- 민 간 부 문	1,100	280	1,150	167	104.5	59.5

가격안정을 위한 대책

-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 공공주택 공급확대
 - 영구임대, 근로자주택 등 총 90만호 건설·공급
 - 국민주택건설의무비율 운용: 60% → 70% ('91)
- 공공개발택지 공급확대
 - 88년 이후 총 349개지구 6,903만평을 지구 지정
-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
 - 서민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자금 지원
 - 국민주택기금 지원: '81~'90년까지 8조1천억원 ('91년 2조5천억원)
- 다가구·다세대주택 공급촉진
 - '90년 건설실적: 252천세대
-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위주로의 공급제도만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음.
 - 투기성 자금의 유입방지책 미흡

주택거래질서 확립

- 가수요 억제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
 - 입주자격 제한
 - *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만 공급
 - 영구임대: 생보자, 의부자 등 도시영세민
 - 근로자주택: 월급여 90만원 이하인 장기무주택자
 - 장기임대 및 소형분양: 청약저축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주택자
 - * 민영주택도 실수요자 위주로 자격제한
 - 한번 분양받은 사람은 영원히 청약1순위에서 제외
 -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제한
 - 대형주택소유자 청약제한

- 주택공급규칙 보완

- 민영주택 중 전용 25.7평 이하 50%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
- 신도시 채권입찰 확대실시(총전 40.8평 → 25.7평 초과)
- 장기가입자 우선(장기가입자 20배수 청약제한)

- 주택전산화 추진

- 6대도시 및 경기도의 재산세(주택)과세자료 입력('91. 3)

4. 향후 주택 및 토지가격 전망

- 주택 및 토지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공급물량의 확대와 병행하여 금융 및 세제측면의 보완을 통한 유동성 관리가 긴요

《미국의 경우》

- 1980년에는 고금리상태 지속으로 부동산시장이 정체되었으나
- 1980년대 중반 멕시코의 채무위기 등을 겪으면서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여
- 뉴욕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이 2~3배 상승됨으로써
- 건설붐에 따라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 결과 임대료 및 부동산의 실질가격 하락

《일본의 경우》

- 주가폭락, 금리인상, 미국의 부동산불황 등의 영향으로 대형부동산회사의 잇따른 도산이 발생하여
 - 단기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유도
 - 동경시내 아파트값은 90.2~91.2 사이에 15~20%씩 하락
- 한국은 '88년 이후의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으로 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신규주택분양이 계속되고 연말까지는 61만호의 주택이 입주되므로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임.

- 최근 주택가격 동향('91.5.1~5.29)
 - 지방도시(동해, 속초, 충주, 순천, 여수, 창원, 충무 등): 미분양 발생
 - 수도권(안양, 부천, 성남, 안산, 과천 등): 500만원~1,000만원 하락
 - 서울(압구정동, 목동, 하계동 등): 1,000만원~2,000만원 하락
- 지가의 경우도 '90년 1/4분기를 정점으로 안정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 등으로 투기적인 토지가수요가 현저히 감소
-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택지 및 주택의 공급확대와 유통성관리 강화, 부동산담보대출 제한, 금융건축정책 등의 시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부동산가격 하락추세는 지속될 것임.

5. 향후과제

주택공급물량 확대

- 200만호의 주택건설 후에도 연간 50만호 내외 주택공급 지속
 - '90년 75.1% ⇌ 2001년 92.6%
 - ※ 5개 신도시 '91년 87,300호 분양(4월 10,844호, 6월 10,531호)
- '92~2001년까지 연평균 50만호 내외의 주택건설에는 9,500여만평의 택지가 소요
 - 산지·구릉지의 효율적 활용
 - 토지자원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용가능용지 조사 완료('87~'89)
 - 산지·구릉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시범지구 개발추진(2개지구)
 - 재개발사업의 적극추진 및 도심고층화 등으로 기존택지활용 극대화
- 현행 주택금융조성체계의 취약점 극복
 - 재정출손 및 응자확대, 국민연금기금 등 타기금으로부터의 예탁확대
 -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확대
 - 주택금융 취급기관의 다변화(시중은행,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의 역할확대)

- 주택관련 각종 행정규제 완화
 - 토지이용규제 완화, 건축관련 규제완화
 - 행정절차 간소화

주택가격안정의 지속추진

- 수급측면
 - 실수요자 위주의 소형주택건설 확대(공급물량 확대와 같음)
 - 가수요 억제
 - 18평 이하 주택은 전량 무주택자에게 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)
 - 6대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전산망을 전국으로 확대('91년말)
- 주택외적 요인(관계부처와 계속 협의)
 - 유동성관리 강화: 예금자들의 적절한 금융자산 수익보장(금리 자율화 등)
 - 세제 보완: 보유과세 강화 등 부동산관련세제에 대한 검토
 - 금융 제한: 부동산담보대출 등 금융관행의 제도개선